

비상사태에 이렇게 대처하자

전쟁이 일어났을 때
나는 어떻게 대처할까?



먼저 집을 중심으로 행동한다

-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른다.
-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, 연료 같은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하지 않으며,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한다.
- 적의 거짓 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

전쟁이 일어났을 때
나는 어떻게 대처할까?

비상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한다

- 군사 작전을 돕기 위한 필요 차량(동원 차량 등)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.
- 비상 사태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빠른 시간 내 귀가한다.
- 개인용 유-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한다.
- 평소 가정과 직장 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전시 대비 물자를 준비하여 항시 점검하며,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 용기에 물을 받아두고 최대한 아껴 쓴다.



재난 복구 및 동원에 참여한다

- 헌혈 및 채혈에 적극 협조하고 부상자 수송 및 진료 보조, 전주민 구호 등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- 전쟁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장비의 동원에 대비하여 비상시의 임무, 동원 집결지를 숙지하고 동원 영장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체없이 응소한다. 또한 평시 동원 훈련에 적극 참여한다.
 - 자동차 등 동원 장비 소유자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필수 정비 도구를 구비하여 집결지에 응소한다.
 - 기간산업 시설이나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시 직장에 복귀하여 비상 근무에 임한다.



인명 구조와 소화 활동

-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구조 및 소화 활동에 참여한다.
-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 장비와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작업과 인명 구조 작업을 돕는다.
- 구조 활동은 부상자,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한다.
-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 지역 밖으로 재빨리 옮긴 후,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다음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준다.

